

納甲納支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尹暢烈

1. 序論	6
2. 納甲의 內容	7
3. 魏伯陽의 月體納甲說	8
4. 虞翻의 納甲說	10
5. 納支	11
6. 納甲과 納支의 結合	12
7. 納甲의 醫學的 活用	13
8. 結論	13
參考文獻	14

納甲納支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尹暢烈

中文抄錄

有關納甲納支的研究

本人對納甲與納支的問題進行了初步的研究，得到了如下結論。1. 納甲在以前認為是京房最初創始的，最近則認為納甲是整理先秦時代人民通過天體運行和陰陽變化來解釋易的這種遺說而成的。2. 納甲是將十干與八卦配合而成，因此以十干之首甲來命名，以表示十干。3. 納甲以乾納甲壬，坤納乙癸，震納庚，巽納辛，坎納戊，離納己，艮納丙，兌納丁配合，這裏包含天地父母生六子之理。4. 對納甲的原理最初進行初步說明的是魏伯陽，他著有周易參同契，提示了月體納甲之說，並且對煉丹的火候也進行了說明。5. 趙汝楫等則批判魏伯陽的月體納甲與現實不符，我們應理解魏伯陽的納甲目的在於把卦象與月亮相結合，從而樹立單獨修煉的理論依據。6. 虞翻將納甲最初使用於易的注釋當中，清代的惠棟則繼承了虞氏的納甲說，認為29日坤卦用事，納乙，30日則為日月會合之時，納壬，比參同契解釋的更加明確。7. 納支也叫納子，在各卦的六爻上配合地支而成，亦被人民認為是由京房所創始的。配合的原理包含有陽道順，陰道逆之理，據推測是受淮南子的天文訓中律曆說的影響。8. 六十四卦中384爻都運用的是甲納和甲支的原理，均可以干支配合。9. 利用納甲原理的鍼法有飛騰八法，此法是將八脈交會穴與八卦配合，按時辰分別找出開穴而進行鍼刺的手法。運用此法，穴位以5日為1周期而反復。10. 對於奇經八穴與八卦的配合，還有待於今後進一步進行研究。

1. 序論

納甲法은 八卦에 十干을 配合하여 卦氣의 變化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甲이 十干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一干을 들어서 그 나머지를 포괄하여 納甲이라고 한 것이다. 처음에는 점을 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듯하나 魏伯陽이 月體納甲의 설을 창시하여 氣功煉丹에 있어서 火候의 行止進退를 설명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의 중시를 받아 왔으며 한의학에서는 飛騰八法 등에 활용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론이다. 지금의 많은 학자들은 前漢 元帝(在位 B.C 49~33)때의 易學家인 京房의 積算法에서 처음으로 출현하여 京房이 창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朱子도 朱子語類에서 “納甲은 乃漢焦贛, 京房之學”이라 하여 京房과 그의 스승인 焦延壽의 창안으로 돌리고 있지만 李道平은

“納甲者 … 其說莫詳自始 魏伯陽周易參同契 載籍言納甲者 惟見于此”라 하여 어느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상세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劉大鈞은 周易概論에서 考證하여 이르기를 “其說 較古此說이 是否整理先秦時代人們이 以天體運行과 陰陽消息으로 釋易的遺說而成가(이 說은 比較적 오래되었으니 이 說이 先秦時代 사람들이 天體運行과 陰陽消息으로 易을 해석한 遺說을 정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으며 그는 또 “所謂 納甲說은 是以月亮의 晦朔盈虧로 以象八卦하고 再納以天干하야 以此顯示八卦消息하야 使其不失其時如月行天(周易集解의 坎卦處注)이라 …… 很清楚하니 此法은 系以十干으로 分納于八卦而舉十干之首甲하야 以概其餘故로 納甲이라(이른바 納甲說은 달의 그림, 초하루, 차고 기움으로 八卦를 형성하고 다시 天干을 八卦에 配合하여 이로써 八卦의 消息을 드러내서 그 때를 잃지 않음을 달이 하늘을 행하는 것과 같이 한 것이다. …… 아주 분명하니 이 법은 十干으로 八卦에 나누어 配合하고 十干의 첫 번째 甲을 들어 나머지를 개괄했기 때문에 納甲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¹⁾. 納支는 各卦의 六爻에 地支를 배합한 것이다.

納甲法과 納支法은 그 내용이 깊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2. 納甲의 內容

朱震(字子發, 號漢上, 南宋人, 漢上易集傳을 지었다)은 周易卦圖說에서 이르기를, “納甲은 何也 오 舉甲以該十日也니 乾納甲壬하고 坤納乙癸하고 震巽納庚辛하고 坎離納戊己하고 艮兌納丙丁이니 皆自下生이오 聖人이 仰觀日月之運하야 配之以坎

離之象하나니 而八卦十日之義 | 著矣니라(納甲은 무엇인가. 甲을 들어서 十日을 포괄한 것이니 乾은 甲壬을 들고 坤은 乙癸를 들고 震巽은 庚辛을 들고 坎離는 戊己를 들고 艮兌는 丙丁을 들이니 모두 아래로부터 생하는 것이요 聖人이 해와 달의 運行을 관찰하여 坎離에 配合하였으니 八卦가 十日을 나타내는 뜻이 드러난 것이다)”²⁾라고 하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八卦	乾	坤	艮	兌	坎	離	震	巽	乾	坤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이 說은 說卦傳에서 乾을 父라 稱하고 坤을 母라 칭하며 이 속에서 三男三女의 六子가 생한다는 설명의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北宋의 沈括(字存中, 號夢溪)은 夢溪筆談 象數一에서 “易有納甲之法은 未知起于何時나 予嘗考之컨대 可以推見天地胎育之理라 乾納甲壬하고 坤納乙癸者는 上下包之也오 震, 巽, 坎, 離, 艮, 兌 | 納庚, 辛, 戊, 己, 丙, 丁者는 六子生于乾坤之包中이니 如物之處于胎甲者라(易에 納甲法이 있는 것이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내가 고찰해 보건대 이 속에서 天地가 포태하고 기르는 이치를 미루어 살펴 볼 수 있다. 乾에 甲壬을 納하고 坤에 乙癸를 納하는 것은 위 아래에서 싸고 있는 것이요 震巽坎離艮兌에 庚辛戊己丙丁을 納하는 것은 六子가 乾坤에 쌓인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니 물체가 胎와 껍질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같다)”³⁾라고 하였다. 이는 八卦는 8개이고 천간은 10개이므로 八卦의 乾坤에 처음과 끝의 두 개의 天干을 配合하여 숫자를 맞춘 것인데 天地가 父母가 되어 萬物을 생성함을 비유한 것이다. 배합의 원리는 陽卦에는 陽干을 배합하고 陰

1) 田合祿, 田蔚 編著, 生命與八卦 - 醫易啓悟 太原, 山西科技出版社, 1993, pp. 168-169

2) 朱震, 漢上易傳, 臺北, 商務印書館發行 文淵閣 四庫全書, 經部, 易類, 第11冊, p. 341

3) 田合祿, 田蔚, 上揭書, p. 276

卦에는 陰干을 배합하여 乾納甲壬, 艮納丙, 坎納戊, 震納庚하여 上下에서 싸고 있고 坤納乙癸, 兌納丁, 離納己, 巽納辛하여 역시 上下에서 싸고 있다.

따라서 納甲은 天地萬物이 胎育하는 이치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3. 魏伯陽의 月體納甲說

京房이 그의 京氏易傳 卷上에서 “乾卦甲壬配內外二象”, “姤卦辛壬降內外象”이라 하고 卷下에서 “分天地乾坤之象하여 益之以甲乙壬癸하고 震巽之象은 配庚辛하고 坎離之象은 配戊己하고 艮兌之象은 配丙丁이라”⁴⁾하여 納甲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原理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後漢의 魏伯陽은 納甲이 하늘운행의 자연스러운 본받은 것이라 여겼고 또한 納甲을 달의 차고 기울음과 결합함으로써 煉丹의 火候를 설명하였다. 周易參同契의 聖人上觀章第四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⁵⁾. “三일에 出爲爽하니 震庚受西方이라 八일에 兌受丁하니 上弦平如繩이라 十五에 乾體就하니 盛滿甲東方이라 蟾蜍與兔魄이 오 日月氣雙明이라 蟾蜍는 視卦節하고 兔者는 吐生光이라 七八에 道已訖하니 屈折低下降이라 十六轉受統하니 巽辛見平明이라 艮直於丙南하니 下弦二十三이라 坤乙三十日이니 陽路喪其明이라 節盡相禪與하면 繼體復生龍이라 壬癸配甲乙하니 乾坤括始終이라 七八數十五오 九六亦相當이라 四者合三十이니 陽氣索減藏이라 八卦布列曜하니 運移不失中이라”

4) 高懷民, 兩漢易學史, 臺北, 中國學術著作獎助委員會, 1983, p. 147

5) 李允熙 兪길, 國譯參同契闡幽, 서울, 驪江出版社, 1989, p. 119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매월 음력 초3일 초저녁에 초승달이 서쪽 하늘 庚位에 나타나는데 달의 모습이 밝은 부분이 아래에 처음 나타나 一陽二陰의 震象(☳)이 되어 震卦에 庚을 納하는 것이다(三日出爲爽 震庚受西方). 8일이 되면 초저녁에 달이 남방의 丁位에 나타나는데 이때의 달은 상현달로서 중간에 먹줄을 친 것처럼 평평하게 된다. 그리고 밝음은 더 자라 올라가 二陽一陰의 兌象(☱)이 되므로 兌卦에 丁을 納하는 것이다(八日兌受丁 上弦平如繩). 15일 보름이 되면 초저녁에 滿月이 동방의 甲位에 가득차서 떠오르는데 보름 달은 陽이 가득한 乾象(☰)이 되어 乾卦에 甲을 納하는 것이다(十五乾體就 盛滿甲東方). 蟾蜍는 두꺼비인데 太陽之精을 상징하고 兔魄은 토끼의 뺨이란 뜻으로 太陰之光을 상징한다(蟾蜍與兔魄). 이 때는 해와 달의 두 기운이 모두 성하여 밝게 빛난다(日月氣雙明). 태양은 卦爻之節度를 보아서 그 빛을 베풀고(蟾蜍視卦節) 달은 그 日光을 받아서 차거나 이지러지는 것을 발생시킨다(兔者吐生光). 7,8은 15를 가리킨다. 15일이 지나면 달이 이지러 지기 시작한다(七八道已訖 屈折低下降). 16일이 되면 陽의 다스림이 끝나고 반대로 陰의 統制를 받게 되니 (十六轉受統) 一陰이 아래에서 생겨 一陰二陽의 巽象(☴)이 되어 새벽녘에 서쪽 辛位에 나타나므로 巽에 辛을 納하는 것이다(巽辛見平明). 23일이 되면 下弦달이 새벽녘에 남쪽 丙位에 나타난다. 하현달은 艮象(☶)과 비슷하므로 艮에 丙을 納한 것이다(艮直於丙南 下弦二十三). 30일은 한달의 마지막 날로써 28일 새벽에 微陽이 東方의 乙位에서 소진되기 시작하여 30일이 되면 달빛이 전혀 없고 陰氣만이 純全하여 卦로써는 坤이 되므로 坤에 乙을 納한 것이다(坤乙三十日 陽路喪其明) 坤陰이 극성한 다음에 節度가 다하여 다시 자리를 넘겨 주면 體가 없어지지 않고 體를

이어서 陽이 생겨서 다음 주기로 들어간다(節盡相禪與 繼體復生龍). 壬癸配甲乙 乾坤括始終은 이치를 미루어 배합한 것으로 壬을 甲에 配合하여 乾에 納하고 癸를 乙에 配合하여 坤에 納하여 天干의 始終을 父母卦인 乾坤이 주관하여 六子를 안에 품고 있는 것이다. 소양수 7과 소음수 8을 합하면 15가 되고 노양수 9와 노음수 6을 합해도 또한 15가 되어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그리고 보름에서 그믐까지의 기간이 된다. 이 넷을 합하면 30이 되어 1달이 끝나 陽氣가 소멸되어 감추는 때가 된다(七八數十五 九六亦相當 四者合三十 陽氣索滅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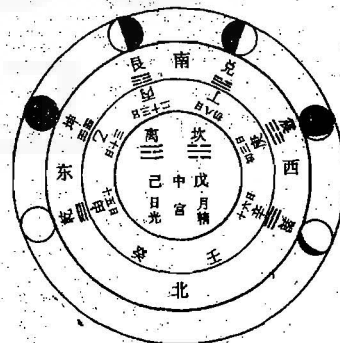
八卦布列曜는 8卦가 열을 지어 빛을 낸다는 뜻이다. 달의 모양을 卦에 배합할 때 여섯 卦象만 보이는데 8卦라고 한 것은 坎離 두 卦가 가운데 있으면서 바깥을 제어하며 자리가 없으나 乾과 坤의 작용을 가지고 있고 해와 달이 서로 感應하여 빛을 내고 陰과 陽이 차고 이지러지며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 실제로 坎離 두 卦의 작용이며 여섯 卦는 구체적으로 象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坎離 두 卦는 추상적으로 작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運移不失中은 운행하여 옮김에 中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中은 무엇인가. 위에서 魏伯陽은 乾, 震, 艮, 兌, 巽, 坤의 卦는 언급하였으나 坎離 두 卦는 언급하지 않았다.

伏羲八卦에서 離坎은 東西에 배치되어 있다. 震의 一陽이 兌의 二陽, 乾의 三陽으로 발전해 나가는 중간에 離卦를 놓았고 巽의 一陰이 艮의 二陰, 坤의 三陰으로 수렴해 나가는 중간에 坎卦를 놓아 乾坤의 사이에서 中道的인 作用을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달이 차가는 과정이 震兌 乾의 과정이고 이지러지는 과정이 巽艮坤이 과정이 되어 伏羲八卦의 象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이에 離와 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十干은 乾納甲壬, 艮納丙, 兌納丁, 震納庚, 巽納辛, 坤

納乙癸에서 戊己의 中央土가 아직 남아 있다. 坎은 陽이므로 戊를 納하고 離는 陰이므로 己를 納하면 坎은 月體가 되고 離는 日體가 되어 조화를 행하는 象을 남김없이 다 드러낼 수가 있다.

八卦納甲은 先天八卦의 변형으로서 魏伯陽은 이를 빌어 火候의 升降을 설명하였다. “三日出爲爽, …… 盛滿甲東方”은 上半月 중의 月象과 卦象으로 進陽火(달의 보름전 三候, 즉 기울어진 데서 차는 것으로 卦象은 ☳ → ☱ → ☵의 순이며, 陽이 자라고 陰이 쇠퇴하는 것을 상징한다)에 비유하였고, “七八道己訖 …… 東方喪其明”은 下半月の 月象과 卦象으로 退陰符(달의 보름 후 三候, 즉 찬 데서 기우는 것으로 卦象은 ☵ → ☱ → ☳의 순이며, 陽이 쇠퇴하고 陰이 자라는 것을 상징한다)에 비유하였다. 이처럼 《周易參同契》는 ‘周天火候’의 陰陽消長과 上下升降을 형상적으로 나타내었고 세밀하게 구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月體納甲圖

그러나 魏伯陽의 說은 대략적인 것만 취한 것이어서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으므로 훗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趙汝樸(南宋, 明州 鄞縣人)의 비판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⁶⁾.

“晝夜有長短하니 晝短하야 日沒於申 則月合於申하고 望於寅하며 晝長하야 日沒於戌 則月合於戌하고 望於辰이오 十二月間에 三日之月이 未必盡見庚하며 十五日之月이 未必盡見甲이라 合朔有先後 則上下弦이 未必盡在八日二十三日하며 望晦 | 未必盡在十五日三十日이라 震巽이 位於西하고 兌艮이 位於南하며 乾坤이 位於東은 與大傳之卦로 易位오 兌晝는 陽過陰하고 艮晝는 陰過陽이니 不能均平하야 與上下弦月體로 相符라(낮과 밤에는 길고 짧음이 있으니 낮이 짧아 해가 申(西南方)에서 사라지면 달이 申에서 합하고 寅에서 보름이 된다. 낮이 길어 해가 戌(西北方)에서 사라지면 달이 戌에서 합하고 辰에서 보름이 된다. 열두달 사이에 3일 달이 반드시 庚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열닷새의 달이 반드시 甲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合朔에도 앞뒤가 있으니 上弦과 下弦이 반드시 여드레와 스무사흘날은 아니며 望과 그믐이 반드시 열닷새와 30일인 것은 아니다. 震과 巽이 서쪽에 위치하고, 兌와 艮이 남쪽에 위치하며, 乾과 坤이 동쪽에 위치하는 것은 《大傳》의 卦와 자리가 바뀌었다. 兌의 궤획은 陽이 陰을 지나친 것이고 艮의 획은 陰이 陽을 지나친 것이니 均平한 상현과 하현달의 모양과는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조여매의 비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위백양의 납갑의 목적이 학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궤상을 달리 결합시켜 단도수련의 이론적인 근거로 삼으려는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수련에 응용하는데 대해서도 위백양은 정밀하고 상세하게 순서와 방법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위백양의 납갑설의 의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4. 虞翻의 納甲說

6) 高懷民, 上揭書, p.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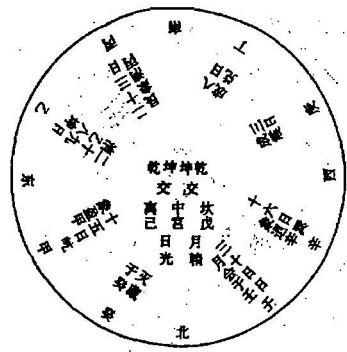
魏伯陽의 納甲은 易의 注釋에 사용된 것이 아니다. 易의 注釋에 納甲을 이용한 사람은 虞翻(字仲翔, 會稽, 餘姚人)이다. 虞翻은 魏伯陽과 同鄉人으로써 그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리라 추측된다. 그는 納甲을 이용하여 易을 注釋한 곳이 매우 많은데 繫辭傳의 懸象著明 莫大乎日月을 注解하면서 다음과 같이 納甲을 活用하고 있다⁷⁾.

“虞翻이 曰 謂日月懸天하야 成八卦象이라 三日暮에 震象出庚하고 八日에 兌象見丁하고 十五日에 乾象盈甲하고 十七日旦에 巽象退辛하고 二十三日에 艮象消丙하고 三十日에 坤象減乙이라 晦夕朔旦하고 坎象流戊하고 日中則離니 離象就己라 戊己는 土位니 象見於中하고 日月相推 而明生焉이라 故로 懸象著明은 莫大乎日月也니라”(虞翻이 이르기를 해와 달은 하늘에 달려서 八卦의 象을 이룬다. 초사흘 저녁에는 진의 상이 경에서 나오고 여드레에 태의 상이 정에서 나타나고 열닷새에 건의 상이 갑에서 가득차고 열이래 아침에 손의 상이 신에서 물러나고 스무사흘날에 간의 상이 병에서 소멸하고 30일에 곤이 상이 을에서 사라진다. 그믐과 저녁, 초하루와 아침에 감의 상이 무에서 흐르며 한 낮은 이이니 이의 상이 기에 나아간다. 무, 기는 토의 위치이니 상이 가운데서 나타나고 해와 달이 서로 밀어 밝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상을 매달아 밝음을 드러내는 것은 해와 달만한 것이 없다.)

清代的 惠棟(1697~1758. 蘇州人, 字定宇, 號松崖, 人稱小紅豆先生)은 그의 易漢學卷三에서 虞翻의 納甲을 다음과 같이 圖解하였다⁸⁾.

7) 李鼎祚, 周易集解, 臺北, 商務印書館發行, 文淵閣 四庫全書 經部 易類第七冊, p. 833

8) 惠棟, 易漢學, 臺北, 商務印書館發行, 文淵閣 四庫全書 經部 易類 第52冊, p. 325



虞氏八卦納甲圖

이 納甲圖의 특징은 29일에 坤卦가 用事하는 것으로 여겨 乙을 納하고 30일은 日月이 會合하는 때로 삼아 壬을 納한 것으로 參同契보다 더욱 明確하다. 虞翻은 納甲說로 周易經傳을 解說한 것은 卦氣說의 한 形式으로써 煉丹術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는 參同契에서 納甲으로 煉丹術을 해설한 것과 다른 것이다.

5. 納支

納支는 또한 納子라고도 한다. 京房은 天干은 八卦에 配合를 하고 지지는 각 卦의 육효에 配合하였다. 後人들은 이를 또한 京氏爻辰이라고도 하는데 12爻가 12支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뜻이다. 그 구체적인 配合法은 다음과 같다. 乾의 初爻를 坤에 교합하면 震(☳)이 되므로 震의 初爻는 子와 配合하고 四爻는 午와 配合한다. 乾의 二爻를 坤에 교합하면 坎(☵)이 되므로 坎의 初爻는 寅과 配合하고 四爻는 申과 配合한다. 乾의 上爻를 坤에 교합하면 艮(☶)이 되므로, 艮의 初爻는 辰과 配合하고 四爻는 戌과 配合한다. 各卦의 나머지 諸爻도 子寅辰午申戌의 순서로 배열한다. 坤의 初爻를 乾에 교합하면 巽(☴)이 되므로 巽의 初爻는 丑

과 配合하고 四爻는 未와 配合한다. 坤의 二爻를 乾에 교합하면 離(☲)가 되므로 離의 初爻는 卯와 配合하고 四爻는 酉와 配合한다. 坤의 上爻를 乾에 교합하면 兌(☱)가 되므로 兌의 初爻는 巳와 配合하고 四爻는 亥와 配合한다. 各卦의 나머지 諸爻도 亥酉未巳卯丑의 순서로 배열한다. 初爻가 長子長女를 낳는 것이 天地胎育의 이치이다. 만물은 胎甲에 위치해 있을 때 머리가 아래를 향해 먼저 나오니 陽卦는 子에서 戌까지 순서대로 세고, 陰卦는 亥에서 丑까지로 逆으로 세는데, 이것이 陽道順, 陰道逆의 이치이다.

이는 陽支인 子寅辰午申戌은 陽卦인 乾震坎艮에 配合하고 陰支인 丑卯巳未酉亥는 陰卦인 坤巽離兌에 配合하여 父인 乾卦와 長男인 震卦는 아래에서부터 子寅辰午辛戌을 配合하고 中男인 坎卦는 일보전진하여 寅辰午申戌子를 配合하고 少男인 艮卦는 일보전진하여 辰午申戌子寅을 配合한 것이다.

母인 坤은 통일이 未에서 시작되고 陰道는 逆行하므로 아래에서부터 未巳卯丑亥酉를 配合하고 逆行하는 陰道의 原理에 의해 少女인 兌卦는 일보후퇴하여 巳卯丑亥酉未를 配合하고 中女인 離卦는 일보후퇴하여 卯丑亥酉未巳를 配合하고 長女인 巽卦는 일보후퇴하여 丑亥酉未巳卯를 配合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八卦 卦爻		八卦							
		乾	震	坎	艮	坤	兌	離	巽
外卦	上爻	戌	戌	子	寅	酉	未	巳	卯
	五爻	申	申	戌	子	亥	酉	未	巳
	四爻	午	午	申	戌	丑	亥	酉	未
內卦	三爻	辰	辰	午	申	卯	酉	亥	酉
	二爻	寅	寅	辰	午	巳	卯	丑	亥
	初爻	子	子	寅	辰	未	巳	卯	丑

이것은 京房이 淮南子の 天文訓에 나오는 十二律을 十二月과 十二支에 配當하는 律曆說 등의 영

향을 받아서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東漢의 鄭玄은 京房의 爻辰을 계승하여 경전주석에 活用하였다. 그러나 乾卦의 配合를 제외하고는 京房의 配合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6. 納甲과 納支의 結合

惠棟의 易漢學 卷四 京君明易上에서 八卦六位圖의 乾坤卦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⁹⁾.

① 乾(屬金)

- 壬戌土
- 壬申金
- 壬午火
- 甲辰土
- 甲寅木
- 甲子水

李淳風이 曰, 乾主甲子壬午하니 甲은 爲陽日之始오 壬은 爲陽日之終이오 子是 爲陽辰之始오 午는 爲陽辰之終이라 初爻는 在子하고 四爻는 在午하니 乾主陽하니 內子爲始하고 外午爲終也니라

② 坤(屬土)

- 癸酉金
- 癸亥水
- 癸丑土
- 乙卯木
- 乙巳火
- 乙未土

李淳風이 曰, 坤主乙未癸丑하니 乙爲陰日之始오 癸爲陰日之終이오 丑爲陰辰之始오 未爲陰辰之終이라 坤初爻는 在未하고 四爻는 在丑하니 坤主陰故로 內主未而外主丑也니라

이상의 내용은 納甲과 納支를 결합하여 八純卦

의 各爻에 甲子를 配合한 것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八卦 干支 爻位	乾 ☰	坤 ☷	震 ☳	巽 ☴	坎 ☵	離 ☲	艮 ☶	兌 ☱
上爻	壬戌	癸酉	庚戌	辛卯	戊子	己巳	丙寅	丁未
五爻	壬申	癸亥	庚申	辛巳	戊戌	己未	丙子	丁酉
四爻	壬午	癸丑	庚午	辛未	戊申	己酉	丙戌	丁亥
三爻	甲辰	乙卯	庚辰	辛酉	戊午	己亥	丙申	丁丑
二爻	甲寅	乙巳	庚寅	辛亥	戊辰	己丑	丙午	丁卯
初爻	甲子	乙未	庚子	辛丑	戊寅	己卯	丙辰	丁巳

선인들은 卦象의 納甲納支를 기억하기 쉽도록 노래로 만들었다.

乾金甲子外壬午오 坤土乙未外癸丑이라
震木庚子外庚午오 坎水戊寅外戊申이라
艮土丙辰外丙戌이오 巽木辛丑外辛未라
離火己卯外己酉오 兌金丁巳外丁亥라

《周易參同契》에서 “屯以子申, 蒙用寅戌¹⁰⁾”이라고 한 것은 納支法이다. 屯卦는 위가 坎(☵)이고 아래가 震(☳)이므로 初爻는 子와 配合하고 四爻는 申과 配合한다. 그러므로 “屯以子申”이라고 하였다. 蒙卦는 위가 艮(☶)이고 아래가 坎(☵)이므로 初爻는 寅과 配合하고 四爻는 戌과 配合한다. 그러므로 “蒙用寅戌”이라 하였다. 納甲, 納支를 결합하면 屯卦와 蒙卦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屯		蒙	
--	戊子	--	丙寅
--	戊戌	--	丙子
--	戊申	--	丙戌
--	庚辰	--	戊午
--	庚寅	--	戊辰
--	庚子	--	戊寅

이를 응용하면 64卦의 384爻에 모두 干支를 配合할 수가 있다.

9) 惠棟, 上揭書, p. 335

10) 潘啓明, 周易參同契通析, 上海, 上海翻譯出版社, 1990, p. 75

7. 納甲의 醫學的 活用

納甲의 原理를 이용한 鍼法으로는 飛騰八法이 있다. 飛騰이란 飛揚의 뜻으로 급속히 날아 오른다는 뜻이니 효과가 빠르고 신속하다는 뜻이다. 八法이란 八脈交會穴을 이용한 鍼法이란 뜻이다. 八脈交會穴은 交經八穴이라고도 하는데 主客의 合을 이루고 奇經八脈과 通하고 있으며 人體의 主要部位와 相合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鍼灸大成의 八法交會八脈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¹⁾.

八法交會八脈

公孫二穴, 父, 通衝脈	} 合于心, 胸, 胃
內關二穴, 母, 通陰維脈	
後谿二穴, 夫, 通督脈	} 合于目內眦, 頸項, 耳, 肩膊, 小腸, 膀胱
申脈二穴, 妻, 通陽蹻脈	
外關二穴, 男, 通陽維脈	} 合于目銳眦, 耳後, 頰, 頸, 肩
臨泣二穴, 女, 通帶脈	
列缺二穴, 主, 通任脈	} 合于肺系, 咽喉, 胸膈
照海二穴, 客, 通陰蹻脈	

1295년 竇漢卿이 지은 針經指南의 流注八穴序에서 이르기를 “交經八穴者는 針道之要라 … 乃少室隱者之所傳也니 近代往往用之彌驗하니 嘗得其本于山人宋子華라¹²⁾”하여 流注八穴 卽交經八穴을 최초로 전한 사람이 “少室隱者”라고 밝히고 있다.

飛騰八法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문헌은 1329년 王國瑞가 지은 扁鵲神應鍼灸玉龍經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飛騰八法과는 내용이 다르다.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飛騰八法은 1439년 徐鳳이 지은 針灸大全에 처음 나타난다.

徐氏의 飛騰八法은 奇經八穴과 八卦를 配合하고 다시 八卦에 天干을 配合하여 天干에 따라 開穴이 될 때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³⁾.

壬甲公孫卽是乾이오 丙居艮上內關然이라
戊午臨泣生坎水오 庚屬外關震相連이라
辛上後谿裝巽卦오 乙癸申脈到坤傳이라
己土列缺南離上이오 丁居照海兌金全이라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八卦	乾	坤	艮	兌	坎	離	震	巽	乾	坤
八穴	公孫	申脈	內關	照海	臨泣	列缺	外關	後谿	公孫	申脈

응용방법은 甲 또는 己의 日辰이 든 날은 時頭가 甲子로부터 시작하여 乙丑, 丙寅, … 甲戌, 乙亥에 하루가 마치게 된다. 丙寅時에는 艮에 해당하는 內關穴을 취하고 甲戌時에는 乾에 해당하는 公孫穴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운용하면 5일을 주기로 같은 穴이 반복하여 열리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乾을 公孫, 坤을 申脈, 艮을 內關 등과 같이 八卦와 奇經八穴을 配合하였는데 靈龜八法에서의 配合과도 일치하지 않는데 그 配合의 原理는 추후 더 연구해야 할 내용이다.

8. 結論

納甲과 納支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納甲은 京房이 처음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先秦時代 사람들이 天體運行과 陰陽消息으로 易을 해석한 遺說을 정

11) 楊繼洲, 鍼灸大成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 643~644
12) 漆浩, 董曄 主編, 子午流注 靈龜飛騰八法大全,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5, p. 91

13) 楊繼洲, 上揭書, p. 642

- 리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 納甲은 八卦에 十干을 배합하는 것으로 十干의 머리인 甲을 들어서 전체를 포괄한 것이다.
 3. 納甲은 乾納甲壬, 坤納乙癸, 震納庚, 巽納辛, 坎納戊, 離納己, 艮納丙, 兌納丁으로 배합하며 여기에는 天地父母가 六子를 싸서 生하는 이치가 들어 있다.
 4. 納甲을 이치적으로 처음 설명한 사람은 魏伯陽으로 그는 周易參同契를 지어 月體納甲의 說을 제시하여 煉丹의 火候를 설명하였다.
 5. 趙汝楳 등은 魏伯陽의 月體納甲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魏伯陽의 納甲 목적이 卦象을 달과 결합시켜 金丹수련의 이론적 근거를 삼으려는데 있었으므로 이를 이해해야만 한다.
 6. 虞翻은 納甲을 易의 注釋에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清代的 惠棟은 虞氏의 納甲을 계승하여 29일에 坤卦가 用事하는 것으로 여겨 乙을 納하고 30일에 日月이 會合하는 때로 三甲을 納하여 參同契보다 더욱 明確하게 解說하였다.
 7. 納支는 納子라고도 하며 各卦의 六爻에 地支를 配合하는 것으로 역시 京房이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配合의 원리에는 陽道順, 陰道逆의 이치가 들어 있으며 淮南子의 天文訓에 나오는 律曆說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8. 六十四卦의 384爻는 甲納과 甲支의 원리를 운용하여 모두 干支로써 配合할 수가 있다.
 9. 納甲의 原理를 이용한 鍼法으로는 飛騰八法이 있는데 이는 八脈交會穴을 八卦에 配合하고 時辰에 따라 開穴을 찾아 刺鍼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용하면 5일을 주기로 穴이

반복한다.

10. 奇經八穴과 八卦와의 配合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研究가 요망된다.

參考文獻

1. 高懷民, 兩漢易學史, 臺北, 中國學術著作獎助委員會, 1983.
2. 潘啓明, 周易參同契通析, 上海, 上海翻譯出版社, 1990.
3. 楊繼洲, 鍼灸大成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4. 李允熙 옮김, 國譯參同契闡幽, 서울, 驪江出版社, 1989.
5. 李鼎祚, 周易集解, 臺北, 商務印書館發行, 文淵閣 四庫全書.
6. 田合祿, 田蔚 編著, 生命與八卦 - 醫易啓悟, 太原, 山西科技出版社, 1993.
7. 朱震, 漢上易傳, 臺北, 商務印書館發行, 文淵閣 四庫全書.
8. 漆浩, 董曄 主編, 子午流注 靈龜飛騰八法大全,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5.
9. 惠棟, 易漢學, 臺北, 商務印書館發行, 文淵閣 四庫全書.